



문승현 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

01 “세계의 미래”,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사라지다

“세계의 미래”,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사라지다

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행사의 일환으로 “Futura Mundi 세계의 미래”라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. 본 행사 주최자인 나더 마레키사社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간의 행사 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다.

한편 폴커 노이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은 처음부터 이 회의에 대해 비관적이었다. ‘주제국가’를 점차적으로 ‘주제’로 교체하자는 논의가 회의를 통해 펼쳐질 예정이었으나, 주제국가가 지속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. 작년에 처음 개최되었던 이 회의는 과거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. 그리하여 회의 시 토의될 예정이었던 “인류의 커다란 미래에 대한 질문”은 답 없이 남겨지게 되었다.

02 북크로싱 문화운동, 이번엔 비난의 화살

거리 곳곳에 숨겨진 책을 찾아 읽고, 책을 읽은 이가 다시 숨겨두는 흥미로운 문화운동 북크로싱과 그 웹사이트 bookcrossing.com이 영국 작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. 도서판매와 로열티 지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. 《Transworld》의 작가이자 〈War Child Anthologies〉의 편집자인 제시카 애덤즈는 “북크로싱 문화운동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도서를 거리에다 방치하여 도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. 문화운동 북크로싱이 확산되고 이 사이트가 성장할수록 작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으며, 특히 중고도서에 의존하는 자선 서점의 걱정 또한 만만치 않다”며 북크로싱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요구했다. 그녀는 북크로싱

사이트는 광고수입과 판매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작가에게 로열티 한 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.

이에 대한 문제는 9월에 개최되는 작가회의 연례총회에서 제기될 것이다. 북크로싱의 창시자인 론 혼베이커는 제시카 애덤즈의 주장에 맞서 북크로싱 웹사이트가 도서홍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역설한다. 그는 4,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퍼센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가입한 후, 가입 전과 같이 도서에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였고 15퍼센트는 더 많은 지출을 하였고 단지 4퍼센트만이 덜 지출하였다고 설명했다.

03 “레젠!(읽자!)” 독일 책 소개 프로그램 인기

책 소개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유행세를 타고 있다. 몇 년 전 방송이 끝난 프랑스의 ‘부이용 드 켈튀르’를 선두로, 영국의 ‘빅 리드’, 미국의 ‘오프라의 북클럽’과 같은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. 특히 독일 제2TV인 ZDF의 ‘레젠!(읽자!)’이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고정팬들을 확보하고 있다. ZDF는 본 프로그램의 추천도서들을 인터넷과 뉴스레터를 통해 방송 6일 전 먼저 배포하기로 결정했다.

이에 서점을 운영하는 에카트 술라프 씨는 “방송 당일 추천 도서가 발표되면 그 도서들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. 사람들이 읽고자 하는 맘이 생겼는데 책을 구할 수 없었던 책 소개 프로그램의 추천도서 당일발표는 의미가 없었다”며 ZDF의 추천도서 사전 배포결정은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. **◆◆**